

## 성 사도 바울로 축일 강론(6월 29일 축일/7월 12일 강론)

타브로 산맥의 서쪽 고원에 위치한 피시디아의 안티오키아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첫 번째로 사도 바울로의 설교를 듣는 특권을 받은 곳입니다. 이 바울로 사도의 설교는 복음 사도 루가가 쓴 사도행전 13장 16절부터 4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안티오키아에는 바울로 사도에 의해 교회가 세워졌고 이곳으로부터 더 넓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구원사업을 위해 선교를 펼친 위대한 사도 바울로에게 감사를 드리고 있지만, 그 당시 안티오키아의 유대인 회당 지도자들은 도시와 주변 마을들이 그리스도인들로 가득 차는 것을 보고 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로와 동행자 사도 바르나바를 적대시하고 쫓아내기 위해 온갖 교묘한 거짓말로 음해하여 마침내 그들을 쫓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후, 사도들은 이코니온이나 리스트라 같은 다른 지역에 정착하여 선교하려 했지만 그곳에서도 방해를 받고 쫓겨났습니다. 사도 바울로는 리스트라 지역에서 적대자들로부터 돌팔매질을 당했고 그들은 사도 바울로가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버렸습니다.(사도행전 14,19 참조). 하지만 사도 바울로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선교 사업을 펼쳤지만 자주 쫓기는 신세가 되거나 고초를 당했습니다.

고린토 후서 11장 23-33절에는 사도 바울로가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은 일들을 여러 가지로 요약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질병, 굶주림, 헐벗음과 마땅한 거처도 없이 갈증과 추위, 강도에게 노출된 끊임 없는 위협과 지치고 힘들지만 강행군하는 도보 선교여행, 중상모략, 유대인과 이교도에 의한 박해, 몽둥이에 맞아 온몸에 난 상처, 죽도록 당한 돌팔매질, 로마 법정에 서기 위해 압송되다 바다에서 만난 폭풍의 위험, 재판들, 4년 동안의 감옥 생활 그리고 이 모든 것과 같이 "내 몸에 가시로 찌르는 것 같은 병" (고린토 후 12,7 참조)은 낫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를 힘들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박해와 고난에도 불구하고 모든 관점에서 살펴보건대 동서양의 선교 사업을 발전시킨 사도 바울로의 놀라운 집념에 감탄합니다. 그렇다면 최고의 경지에 이른 사도가 어떻게 이 모든 고난들을 해결해 나갔을까요? 사도 바울로의 처지를 본다면 불행하고 위로를 받아야 할 만큼 가련한 처지였으니, 나약한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느님께 이렇게 불평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 일합니다. 당신을 믿도록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모든 고초를 당하도록 어떻게 저를 내버려 두신단 말입니까? 제 형편을 사람들이 본다면 그들은 당신에게 다가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꼴을 당하기 싫으니까요!" 우리 생각도 이렇진대 사도 바울로가 이 모든 시련을 견뎌냈다는 것을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시련을 겪으면서도 사도 바울로의 영혼은 하느님을 원망하거나 불평을 하지 않았습다. 오히려 정반대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기꺼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골로사이 1,24) 또한 고린토인들에게도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해지는 것을 만족하게 여기며, 모욕과 빈곤과 박해와 곤궁을 달게 받습니다. 그것은 내가 약해졌을 때 오히려 나는 강하기 때문입니다."(고린토 후 12,10)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상한 말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로는 더 높은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가 금메달을 따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훈련에 임하는 것처럼, 고된 여정을 거듭하면서 많은 것을 포기하고 고통을 감내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로는 자신의 삶에서 목표를 높이 세웠습니다.(필립비 3,14 참조). 사도 바울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짧은 삶을 살면서 수많은 시련을 견뎌라도 하느님께서 장차 주시는 하늘나라의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각 도시에서 신도들의 용기를 북돋우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격려하면서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사도행전 14,22) 사도 바울로는 거짓 예언자들처럼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말, 즉 청중의 귀를 만족시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다.(디모테오 후 4,3 참조). 고통과 박해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혹시 교회를 떠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하지 않았습다. 오히

려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히 전했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문은 좁고 또 그 길이 험해서 그리로 찾아드는 사람이 적다."(마태오 7,14) 주님께서는 이렇게 권고하십니다. "사실 많은 사람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있는 힘을 다하여라.(루가 13,24)

형제 여러분, 오늘 위대한 사도가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모범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큰 교훈을 기억하고 마음속에 새겨두어야 하겠습니다. 살면서 시련은 항상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겠지만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요한16,33). 그러므로 고난이 닥칠 때마다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임을 확신하면서 운동경기에 초대받은 것처럼 고통을 받아들입니다. 아토스 성산의 성 바이스이오스 수도자는 금식이나 철야예배 그리고 수도자로서 겪었던 영적 투쟁보다도, 자신에게 닥쳤던 병들이 영적으로 더 유익을 주었다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물론 자신의 고통을 혼자 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계속해서 우리 곁에 계시고, 힘을 주십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증명해 주십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련은 주시지 않습니다. 시련이 있을 때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시며 견딜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고린토 전 10,13 참조) 그러므로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은 하지 맙시다. 사도 바울로가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시련이 있을 때마다 용기를 내어 인내하고 투쟁하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임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제는 정의의 월계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날에 정의의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 월계관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디모테오 후 4,8) 아멘